

# 현안과 과제

■ 나홀로 원화 강세로 수출 경기 급락 우려  
- 주요 수출 산업별 영향 분석



< 요약 >

원화 가치 상승 심화













- 지난 1년간 원/엔 환율 26.1% 절상, 원/위안 환율 6.9% 절상
- 원/달러 환율 2013년 1월 15일 현재 2012년 1월 대비 8.5% 평가절상
- 엔/달러 환율 동기간 16.2% 평가절하, 위안/달러 환율 1.5% 평가절상

원화 환율 강세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원/엔 1% 하락 → 총수출 0.92% 감소, 원/위안 1% 하락 → 0.59% 감소

	원/엔 환율 1% 하락시	원/위안 환율 1% 하락시
총수출 감소	0.92% 감소	0.59% 감소

- 원/엔 환율 하락 → 철강, 석유화학, 기계 산업 수출 타격
- 원/위안 환율 하락 → 기계, 산업 수출 타격

	원/엔 환율 1% 하락시	원/위안 환율 1% 하락시
철강	 (1.31%)	 (0.50%)
석유화학	 (1.13%)	 (0.74%)
기계	 (0.94%)	 (1.10%)
IT	 (0.87%)	 (0.06%)
자동차	 (0.68%)	 (0.38%)
가전	 (0.46%)	 (-0.71%)

주: 1) 괄호안은 환율 1% 하락시 각 산업별 수출 감소폭을 의미  
 2) 수주와 기성(수출)간의 시차가 큰 선박제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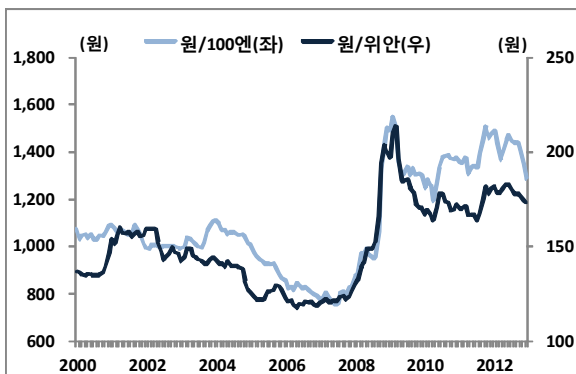
시 사 점

첫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을 통해 원화 환율의 급격한 절상 방지  
 둘째, 미국,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응하여 한국 역시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셋째,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브랜드 가치 향상, 마케팅 강화 및 품질 향상 등 가격 외적인 부문의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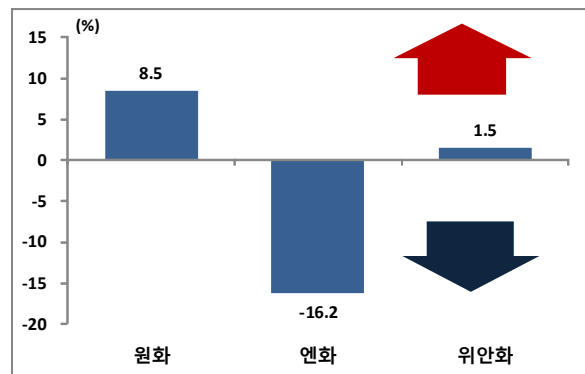
## 1. 최근 원화 가치 상승 심화

- 최근 원화 가치는 무역수지 흑자 지속, 국내 경제 펀더멘털의 호조, 국가 신용등급 상승, 금리 동결 등으로 인해 강세 기조가 지속
  - 원/달러 환율은 2013년 1월 15일 현재 1,056원으로 전년 1월 평균 1,146원 대비 8.5% 평가절상됨
- 한편 일본 엔화의 경우 일본 아베 정권의 양적완화 확대 및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엔화 가치 하락이 심화
  - 엔/달러 환율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및 무역수지 적자가 주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2013년 1월 15일 현재 89.5엔으로 2012년 1월 평균 77.0엔 대비 16.2% 평가절하됨
  - 원/달러 하락 및 엔/달러 상승으로 인해 원/엔 환율 역시 전년 1월 평균 1,489원에서 1월 15일 현재 1,181원으로 큰 폭으로 평가절상(26.1%)됨
- 위안화의 경우 달러 대비 강세이나 절상폭이 작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원/위안 환율 역시 하락하고 있음
  - 위안/달러 환율은 전년 1월 6.31위안에서 1월 15일 현재 6.23위안으로 약 1.5% 절상되었으나,
  - 원/달러 환율 절상폭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원/위안 환율은 6.9% 절상됨

< 원/달러, 원/엔 및 엔/달러 환율 추이 >



< 주요 통화 달러화 대비 평가절상·절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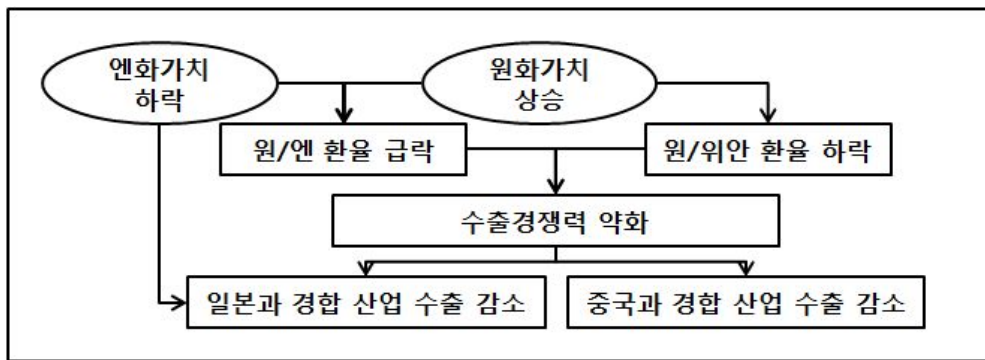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일본 재무성

주: 1) 원/달러, 원/엔 및 엔/달러 환율은 월평균 기준

2) 달러화 대비 평가절상·절하율은 2012년 1월 평균 대비 2013년 1월 15일 현재 환율로 산출

- 원화의 나홀로 강세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국내 경제의 파급영향을 분석함
-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 중국의 원/엔 및 원/위안 환율 변동이 국내 총수출 및 주요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원화 강세가 국내 총수출 및 주요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환율 및 세계경기 변수를 국내 총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
- 한국 총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원/엔 환율, 원/위안 환율 및 OECD 산업생산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 원화 가치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2. 원화 환율 강세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 국내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

- 원/엔 환율 1% 하락시 국내 총수출은 약 0.92% 감소하며, 원/위안 환율의 경우 1% 하락시 국내 총수출은 약 0.5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위안화보다 엔화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은 한국 산업이 중국보다는 일본과의 경쟁 정도가 더 심한 것을 시사

- 원/위안 환율 변동에 대한 추정계수보다 원/엔 환율 변동에 대한 추정계수의 값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 수출이 중국보다 일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국내 총수출과 주요 변수간 회귀분석 결과 >

	원/엔 환율	원/위안 환율	OECD 산업생산
추정계수	0.92***	0.59*	8.08***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OECD

주: 1)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분석기간은 1999년 1분기~2012년 3분기이며,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3분기~2009년 2분기는 제외

3) 원/엔 및 원/위안 환율은 1분기 전 시차변수를 이용함












2) 수출 산업별 영향

- 수출 산업별 영향을 보면 원/엔 환율 하락시에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산업, 원/위안 환율 하락시에는 기계 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
- 원/엔 환율 하락시 철강, 석유화학, 기계 산업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그 다음으로는 IT 및 자동차 산업 수출이 타격을 받으며, 가전 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을 것으로 추정됨
  - 원/엔 환율이 1% 하락할 경우 일본과 수출시장 경합도가 높은 철강 1.31%, 석유화학 1.13%, 기계 0.94%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 IT 및 자동차 산업 수출은 각각 0.87%, 0.68% 감소하고, 가전 산업 수출은 0.4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원/위안 환율의 경우 기계 산업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그 다음으로는 석유화학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철강, 자동차, IT, 가전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추정됨<sup>1)</sup>




1) 위안화의 경우 달러화 대비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기조이나, 변동폭이 작은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원/위안 환율 역시 최근 하락세를 시현

- 원/위안 환율이 1% 하락시 상대적으로 경합도가 높은 기계, 석유화학 산업 수출이 각각 1.10%, 0.7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 철강 0.50%, 자동차 0.38%, IT 0.06%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산업별로 비교해 볼 경우 일본 및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
- 석유화학 및 기계 산업의 경우 일본과는 고부가 제품, 중국과는 범용 제품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엔화와 위안화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철강 산업의 경우 중국보다는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판단되며, IT 및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내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본 및 중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원/엔 및 원/위안 환율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원/엔 환율	원/위안 환율
철강	 (1.31***)	 (0.50)
석유화학	 (1.13***)	 (0.74)
기계	 (0.94**)	 (1.10**)
IT	 (0.87**)	 (0.06)
자동차	 (0.68*)	 (0.38)
가전	 (0.46*)	 (-0.71*)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OECD

- 주: 1)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회귀분석시 주요 변수 및 분석기간은 총수출 회귀분석과 동일  
 3) 주요 산업 수출은 MTI코드 기준 석유화학 21, 철강 61, 자동차 741, 기계 71+72+73, 가전 82, IT 812+813+831+8361임  
 4) 는 매우 나쁨, 는 나쁨, 는 조금 나쁨을 의미  
 5) 수주와 기성(수출)간의 시차가 큰 선박제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2) 가전 제품의 경우 원/위안 환율 하락시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가전 제품의 경우 고품질, 고기술 제품으로 중국 제품과의 완전한 시장 차별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3. 시사점

첫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화 환율의 급락을 방지

-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가치 하락과 원화 가치 상승 추세가 맞물리고 있어 원/엔 환율의 급락이 우려되는 만큼
-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미세조정 및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엔 환율 급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둘째, 미국,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역시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미국, 일본에서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원화 가치 상승 압력이 증대
- 국내 경제 성장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 역시 적정금리 수준 및 양적완화 확대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존재

셋째,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브랜드 가치 향상, 마케팅 강화 및 품질 향상 등 가격 외적인 부분의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엔화 약세 및 원화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품질 향상 및 신상품 개발 등 가격 외적인 부분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
- 특히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 R&D를 통해 세계 선도 제품을 개발해 일본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02-2072-6235)

조규림 선임연구원 (jogyurim@hri.co.kr, 02-2072-6240)